

배포일시	2020. 9. 5.(토) 17:00 (총 5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예 보 과	담당자	과 장 김 용 상 사무관 심 안 섭
		전화번호	062-720-0332

태풍 '하이선' 6~7일 광주·전남 많은 비, 강풍

- 동해안을 따라 북진하여 함경도 해안 상륙(최근접 시기 7일 오전)
- 광주·전라남도 매우 많은 비와 강한 바람
 - 서해남부와 남해서부해상 매우 높은 파도
 - 전남남해안과 전남 남쪽 도서지역 폭풍해일·월파 유의



[제10호 태풍 '하이선'의 6~8일 예상진로]

[태풍 현황과 전망]

- (현황) 제10호 태풍 ‘하이선(HAISHEN)¹⁾’은 5일(토) 15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.
 - 중심기압은 915hPa, 강풍반경은 약 500km, 중심최대풍속은 시속 198km(초속 55m)를 보여 초강력의 강도로 발달한 상태입니다.

- (예상진로와 강풍반경) 7일(월) 아침에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를 경유한 후 오후에 동해안을 따라 북진하여 지나겠습니다. 이 시기의 강풍반경²⁾은 약 360~400km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
 - 이후 동해상에서 북진하면서 8일(화) 새벽에 함경도 해안에 상륙 하겠고, 오후에 중국 하얼빈 부근에서 저기압으로 약화되겠습니다.

- (예상강도) 6일(일) 오전부터 태풍의 발생지보다 수온이 다소 낮은 28℃ 안팎의 해역을 이동하면서 세력이 조금씩 약해지겠으나,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를 지나는 동안에도 945hPa 안팎의 매우 강한 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
 - 현재 30℃ 안팎의 고수온해역을 느리게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5일 자정까지 초강력의 강도를 유지하겠습니다.

1) 제10호 태풍 하이선(HAISHEN)은 중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바다의 신을 의미함.

2)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풍속이 15m/s 이상 나타나는 영역

□ (변동성) 우리나라 서쪽에서 접근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에 따라 태풍의 진로와 강도가 매우 유동적입니다.

○ ① 차고 건조한 공기가 태풍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거나, ②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조금 더 이동할 경우 예상 진로가 동편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○ 이 경우, 태풍과 일본 열도와의 마찰이 강해지거나 건조공기가 태풍 내부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태풍의 세력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[기상 전망]

〈 광주, 전라남도 〉

- 예상강수량(7일까지): 100~200mm
(많은 곳 지리산부근 300mm 이상)
- 태풍 최대 위험 시점: 강수 7일 아침~오후
바람 7일 아침~저녁

□ (강수 전망) 16시 30분 현재 태풍 북쪽의 비구름대에 의해 전남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으며, 5일 밤에 점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. 이후 7일 밤에 점차 비가 그치겠습니다.

○ 태풍 북상에 따라 광주·전라남도 지역은 100~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, 지리산 부근에서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

○ 제9호 태풍 '마이삭'에 의한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또 다시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기 바랍니다.

□ (강풍 전망) 7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남해안은 최대순간풍속 시속 70~110km(초속 20~30m)의 매우 강한 부는 곳이 있겠고, 광주와 내륙에서도 시속 70km(초속 20m) 내외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.

○ 건설현장,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, 농작물의 낙과 등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.

□ (풍랑 전망) 6~8일 낮까지 남해서부해상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4~12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. 서해남부해상에서도 6일 낮부터 8일 오전까지 3~6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되니 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기 바랍니다.

○ 특히, 전남남해안과 도서지역에서는 태풍의 낮은 중심기압으로 인해 해수면이 평소보다 더 높아지고 매우 높은 파도에 의해 7일 낮(11~13시)과 밤(자정부근) 폭풍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○ 너울로 인해 물결이 높아지면서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크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라며, 해안도로·해안가 저지대는 폭풍해일로 인해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침수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대비하기 바랍니다.

○ 남해안과 도서지역 지점별 조고 정보 (만조시각/cm)

- 7일 여수 11:44(290) 23:45(278)

- 7일 고흥(녹동) 12:26(350) / 8일 00:30(336)

- 7일 거문도 12:12(276) / 8일 00:15(267)

- 7일 완도 12:51(318) / 8일 00:25(326)

(출처: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)

